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부활절 후 기쁨의 50일(The Great Fifty Days)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1/4분기 실행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공동체운영위원회가 정기회의로 모입니다. (오후 2시, 공동체사무실)
- 해외문화체험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멋쟁이학교 4학년이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조장희(생일) · 이재신 집사 가정
서병욱 · 임진숙 집사 가정 (결혼기념)

강단을 꽃으로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15 호

2026년 4월 1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기도

요즘 뉴스의 헤드라인은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지구 저편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요즘. 기도의 제목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평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거대한 전쟁과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면서 평화를 부르짖지만 정작 내가 지켜 가야하는 평화는 놓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글의 소개는 재미있는 글이라고 했지만 그저 재미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죠?”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빠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전쟁에 관한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벨기에를 총동해서 시작된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거들었습니다. “세르비아의 암살자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했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아이에게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말해줘요”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아니, 애가 지금 당신한테 묻은 거야? 내게 물어서 내가 대답한 건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남편의 큰 소리에 아내가 화를 벌컥 내며 문을 팡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잠자코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아들은 “아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알겠어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의 ‘알겠어요’는 전쟁의 이유가 엄청난 일 때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마5:9)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

려나,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평화롭지 못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전히 화와 욕구 불만에 쌓여 있고 자신이 손해 보는 것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는 독하고 단단한 마음을 고수하는 것을 봅니다.

평화를 지켜가며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평화로워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평화로운 일이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롬12:21)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기도 중에 두 손을 움켜쥐는 것은 세상의 무질서와 맞서 일종의 반격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계속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나의 정당함만을 고집하는 수준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원수를 나의 곁으로 가까이 데려오는 행위이고 심지어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원수를 보호하기까지 하는 일이 됩니다.

이런 기도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라는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라는 악의 의도와 외침을 뿌리째 흔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이유에서 전쟁이 일어났는지 확연히 알 수 도 없는 미궁 속에서 서로의 악한 행동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참된 기도가 그들 안에 있을 수 있기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묘연해 보여 낙담이 될 때가 있지만,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희망을 품고 또 다시 두 손을 꼭 움켜쥐어 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 말씀

“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
 <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8, 33 / 70

기도 : 최연우 집사

성경 : 열왕기하 1장

제목 : 교만한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1. 내용: 아하시야가 바알세불에게 묻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What)

<문단구분>

1~8절 아하시야의 중병과 하나님의 심판경고

9~15절 엘리야를 찾아온 오십 부장들

16~18절 아하시야의 죽음

2. 의미: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신다 (Why)

- 1)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 2) 교만한 왕이 낮은 곳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 3)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의 극치이다.

3. 적용: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자 (How)

- 1) 내 삶의 주권을 점검하자.
- 2) 회개에 민감하자.
- 3)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자

딸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

저희는 딸 둘을 시집보내고 부부 둘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직장생활 하며 교회다니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하거나, 새벽기도를 가거나, 교육자선교회 세미나를 가더라도 항상 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뒷자리에 돛자리를 깔고 아이들을 보는 방을 차려, 놀며 예배를 드렸고, 고등부교사 수련회를 가면 딸들은 7살인데도 저희들을 도와 심부름하고 알아서 밥도 잘 먹여주었습니다.

딸들이 자기 전에 항상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고, 집을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집을 아주 잘 갔습니다. 큰 딸은 믿음 3대 집안에 가서 손자 둘을 키우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딸은 시부모가 믿음이 좋은 집안에 가서 매우 사랑받으며, 손주 셋을 키우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위는 대학부 활동을 뜬하게 했었는데 갑자기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농촌봉사 까지 참여하는 믿음이 좋은 청년이 되어서 그 부모가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장소에 작은 딸이 있었고, 봉사활동 장소에도 작은 딸이 있었고, 저희 집에는 장미 100송이가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부모님도 작은 딸을 매우 사랑해 주어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큰 사위는 한의사 자격증을 따, 복음 전하러 어느 작은 교회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해 기어들어온 할머니를 침으로 치료해주고 기도하고 복음전한 후에, 그 할머니가 걸어서 기뻐하며 집에 돌아갔던 일이 있어서 사위는 더욱 힘을 얻어 자비량 선교를 다닙니다. 저희 부부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끔은 물질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텃밭에 감자와 딸기모종을 심었습니다. 손주들이 호미를 들고 감자 캐고 딸기를 따는 모습을 상상하면 설레입니다. 손주들 주려고 청계도 키웁니다. 금방 낳은 알을 씻어 양쪽에 구멍을 뚫어 빨아먹는 모습에 저는 그냥 좋고 웃음이 납니다.

딸들을 잘 키우시고 손주들을 잘 키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뜻한사랑방 이운순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 편 62 : 5-7

25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누가복음 6 : 37

508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 교

베드로전서 1 : 1-9 설교자

88

젊은이사랑방

“ 산 소망으로 걷는 나그네 길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171

288(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조항민 최신헌 / 봉헌위원 : 강춘자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에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유산을 품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산 소망으로 걷는 나그네 길

나그네의 정체성. 베드로는 고난 받는 성도들을 향해 '흠어진 나그네'이자 '택함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사회적 배척과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뿌리내린 자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일깨워 줍니다.

살아있는 산 소망. 세상의 희망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없어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가 겪는 실제적인 고난과 상실의 무게를 이겨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믿음의 연단. 신자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정련하시는 과정입니다. 성부의 긍휼로 우리를 거둬나게 하시고,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유산을 보장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산 소망을 품고,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최창수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어느 순간에 꽃이 만개하고, 어느 순간에 새싹이 쑥쑥 자라나고, 어느 순간에 꾸러기들이 춤을 추며 놀고 있습니다. 예쁜 공주님들이 노래만 있으면 방방 뛰면서 춤을 춥니다. 노래 틀어주면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음악분수 가셔도 춤추고, 공주처럼 춤추고, 막춤도 추고, 노래 없어도 방방 뛰면서 춤춥니다. 꾸러기 공주님들은 흥 많은 엄청난 댄서들입니다.

1년에 한 번 먹는 구충제를 먹었습니다. 꾸러기는 알약이 힘들어서 특별히 물약으로 준비해주셨는데 우리 하온이는 입맛에 맞았는지 더 먹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튼튼한 몸으로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멋진 봄꽃을 보러 어린이대공원에 놀러갔다 왔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자리 잡으러 가는 길에 동물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평소에 보면 항상 자고 있던 친구들이 일어나 있는 모습에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즐겁게 동물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예쁜 꽃들이 바람에 날려 꽃비가 되어 내려오는데 너무나도 예뻐합니다. 점심식사 후 신나게 놀고, 간식을 먹으며 음악분수를 봤는데 꾸러기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나와 너무 열심히 춤을 추는데 다양한 장르, 개성 넘치는 동작들이 보는 관객 입장에서 너무 재밌는 공연 같았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하늘이 맑고 미세먼지 없는 화요일 아이들은 트램펄린을 열심히 탔답니다. 한 주간 교육관 공사로 놀이터가 제한이 있었지만 여기저기에서 재잘거림이 있는 나날이었습니다. 식사 이후엔 구충제를 먹었는데 냄새가 좋다며 하나 더 달라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매주 목요일 마다 책임마가 오셔서 아이들에게 재미나게 책을 읽어 주십니다. 이번 주에는 졸업생 이은찬맘께서 오셔서 섬겨 주셨는데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월 14일 화율은 생존 수영 교육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어서 어린이학교에서도 이번에 필요성을 절감하며 오랜만에 생존 수영 강습을 받습니다.

4월 15일 수율 오전에는 건강검진을 합니다. 내과 치과 안과에서 건강 검진을 합니다. 한 해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쑥쑥 커가는 아이들이 참 예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커서인지 감기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언능 나아서 등교하길 바라고 봄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4월 첫주 월요일은 '공동체학교 개교기념일'로 하루를 쉬었습니다. 같은 날 멋쟁이 4학년 학생들과 최기찬 전도사님은 미국으로 10주간의 해외문화체험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약간은 긴장한 듯한 모습이 보였지만, 무사히 입국하여 잘 도착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4학년을 제외한 재학생들 역시도 바뀐 인원에 맞추어서 적응을 해야 하겠지요. 목요일에는 '봄 나들이'를 계획했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예정 되어 있어서 '롯데월드'로 행선지를 바꾸었습니다. 오랜만의 외출이어서 다들 들뜬 심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모뎀별로 흠어져서 놀이기구를 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돌아오는 길은 대중교통으로 밤 10시가 다 되어서 도착하였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있었지만 다들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 감기가 여전히 돌고 있어서 몇몇 학생들은 아직도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도보여행이 곧 다가오는데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 교사 : 정재훈 >

꽃꽃 같은 사람들

올해 부활 주일 찬양 잔치도 참 좋았습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식구들은 평균 연령이 제법 높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투정 하나 없이 다윗처럼 춤추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매우 열심히 기쁘게 참여한 기념으로 이번 주는 방모임을 대신해 함께 나들이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사는 혜택은 이런 날 톡톡히 봅니다. 아침식사 후 오전 10시 집 앞 주차장에서 만나 승합차 한 대에 다함께 타고 훌쩍 떠날 수 있으니까요.

목적지는 가까운 명소 국립수목원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나는 연두색 새잎과 노란색 보라색 분홍색 흰색 어여쁜 꽃들이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국립수목원의 봄은 참 고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두세 명이 짝을 지어 길을 걸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눈길을 사로잡는 나무 앞에 꽃 앞에 멈추어 서곤 했습니다.

식물박사 정혜정 권사님이 현호색, 앵초, 쇠별꽃, 피나무, 깽깽이풀 등 꽃 이름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제각각 고운 색과 모양을 가졌는지 볼 때 마다 예쁘다 참 예쁘다 칭찬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꽃꽃 노래가 생각나서 흥얼흥얼 부르니 옆에서 누군가 향옥이도 그렇다, OO도 그렇다, OO도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후렴구처럼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가까이 보면 예쁜 구석, 멋진 구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단점도 많지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 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방공동체 안에서도 각자 고유한 역할을 톡톡히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애를 쓰며 살고 있기에 때로 보기에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예쁜 구석이 많은 이 분들과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길을 걷고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고 활짝 웃으며 사진도 찍으며 토요일 오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전향옥 집사

<주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96장, 292장

성 경 : 마태복음 5장 38-48절

말 씬 : 세상의 교훈과 정반대로 가라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미국-이란 휴전>

미국과 이란이 전쟁 39일째인 7일(현지시간)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더이상 학전 없이 무익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 타향에서 복음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건강과 안전을 향한 위험이 줄어들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부활의 기쁨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한주간이 되도록.
- 2) 공사의 뼈대가 갖춰지고 있다. 안전하게 탄탄하게 잘 세워지도록.
- 3) 최기찬 선생님과 멋쟁이 4학년이 잘 도착. 안전과 성장을 위해서.

<생활공동체 소식 >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 되면서 아픈 식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감기몸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 모두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증축공사로 주말까지 소음이 있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지어지는 건물을 보며 흐뭇한 마음이 큼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되리라 기대하며 계속 애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 장영미 전도사 >